SAMC LAW REVISION

1.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 수입 시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조직은행이 뼈 연골·피부 등 인체조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외 제조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 제조원에서 인체조직을 수입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조직은행을 감시하는 감시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12월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했다.



2. 벼·찹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 기준발동물량, 예정

현행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찹쌀, 쇄미, 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기준발동물량도 52만 2,523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 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올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3. 수입 중단 대상에 '노르플록사신' 등 동물용 의약품 7종 추가 예정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르플록사신' 등 동물용 의약품 7종을 수입 중단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 예정국, 수출 예정일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중단 대상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개정 안을 12월 13일 행정예고 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수출입통관국·감시국,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

우리나라 공 해상의 최대 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 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해상물류와 항공물류로 분리했다. 북부산세관의 명 칭도 현 세관 소재지(부산 남구 용당동)에 부합하도록 다시 용당세관으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인천세관 내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 시행규칙을 12월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2. 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중국이 내년 1월부터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고품질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850개 품목에는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나 국외 특색의 일용소비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면서 냉동 돼지고기, 냉동되지 않은 오렌지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3. 내년 수출, 1년 만에 반등 ... 반도체 10% 증가 전망

내년도 수출이 반도체 단가 회복 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5,4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석유 관련 제품 등 가격 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글로벌 교역 단가의 하락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받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SAMC | FTA TREND

1. 리커창 "중한일, 힘모아 자유무역 수호하고 FTA 가속화해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4일 "중국·한국·일본 3국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무역은 경제의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많은 국제기구가 내년을 '10년 전 국제 금융위기 이래 제일 저조한 시기'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어온) 중한일 협력 정신을 잘 발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 對인도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쉬워져 ... 적극 활용 당부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에 소극적이던 인도 측이 앞으로는 소급 발급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우리 對인도 수출기업은 좀 더 쉽게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당국인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에 적극적으로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3.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선언

'제3차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에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올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시 캄보디아 측의 교역 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했다. 이번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선언으로 올 10월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11월 RCEP 협정문 타결에 이어, 新남방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개선 가속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8g)형태로의 제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금번 개정으로 미생물 배양시 pH조절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되었으며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도 개선되어 고시되었다.



Read More

2. 「국내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한국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평균보다 높으나,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가 자율표시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종 1병당 평균 열량은 맥주 500ml 기준 236kcal였고, 소주 360ml기준 408kcal, 탁주 750ml 기준 372kcal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서도 2017년 이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 소비자가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국내에선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에서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 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 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검역) 기존의 무작위 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AMC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1. AEO 수출입 안전관리기준 준수요청서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공인 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거래기업에게 수출입 안전관리의 정보 및 필수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Red More를 누르시면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운송수단, 봉인, 물품취급 관련 국제적인 안전관리 준수를 위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귀사의 업무범위와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출입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